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관육의식을 하고 있다.



5월 28일 봉축 법요식에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정당 수뇌부,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봉축 법어에 앞서 주창자를 들어보이고 있다.

산사서 실업고통 날려요

금산사, 법흥사 이색 템플스테이

사찰에서 모내기를 체험하고 실업 극복 의지를 다지는 등의 이색 주제 템플스테이가 잇달아 열려 눈길을 끈다.

조계종 제17교구본사 모악산 금산사(주지 원행)는 오는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쌀로 만든 템플스테이'를 연다.

삼국시대 만들어진 벽골제가 있는 부량면에서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는 시골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모내기 체험, 방앗간 구경, 수리박물관 탐방, 누룽지 공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금산사는 "직접 모도 심고 이앙기도 운전하면서 김제 평양의 논바다를 체험할 수 있다"며 "농촌체험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쌀로 만드는 템플스테이' 참가비는 17세 이상은 7만원이며, 초중학생은 3만 원이다.

영월 사자산 법흥사(주지 도완)는 템플스테이 10주년을 기념해 경제난 속에

좌절감을 겪고 있는 실직자 60여 명을 초청해 '실업 극복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나는 소망한다, 다시 꾸는 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법흥사 템플스테이는 6월 8일부터 10일까지,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2차례 걸쳐 진행된다. 명사 초청 강연 '긍정의 힘'을 비롯해 영월투어, 꿈의 대화, 구봉대산 트레킹, 꿈 주머니 만들기 등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주지 도완 스님은 "템플스테이가 현대인들의 심신 의지처로 확대하고, 자비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준비했다"며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실직의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고통을 훌훌 털고 일어났으면 한다"고 밝혔다.

'실업 극복 템플스테이'는 40대 이상 실직 가장이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금산사 (063)542-0048, 법흥사 (033) 375-9173

신종일 기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참나찾기 '인성교육 5계' 제안

5월 28일, 조계종 등 전국 사찰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봉행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이 5월 28일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조계종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조계사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부처님 오신 뜻을 기렸다.

종정 진제 스님은 봉축 법어를 통해 "우리에게는 참나를 찾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참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형상과 상상의 감응을 넘어선 상호 이해이자 자유 평등의 당체이기 때문"이라며 "일상생활 가운데 남을 도우며 참선한다면 마음의 온갖 번뇌와 갈등이 봄눈 녹듯 사라질 것"이라고 수행 정신을 강조했다.

또한 자리나는 학생들에게는 인성 교육 일환의 5계 사상을 스님은 제안했다. 진제 스님은 5계로 △국가의 필요한 사람이 될 것 △부모에게 효도하고 웃어른 공경할 것 △친구를 믿음으로 사귀는 것 △바정성 다할 것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할 것을 제시했으며, "학생들뿐만 아니라 만인이 이 다섯 가지 계율을 잘 지키면 온 집안이

화목하고 인류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최근 도박 사태에 대한 입장을 재차 내놨다. 스님은 "최근 우리 승가는 승가답지 못한 일로 국민여러분과 사부대중께 큰 상처를 드렸다. 이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승 스님 "승가정신 회복 노력" **쌍용차 노조 등 헌화 동참 '눈길'** **'정치 계절' 정치인 대거 참석**

제대로 실천하기 못했기 때문"이라며 "그 상처가 깊고 크기에 치료 또한 오래 걸릴 것이다. 커다란 인내와 끈질긴 노력으로 승가 구성원들과 묵묵히 걸어갈 것"이라고 사태 해결의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 "승가가 먼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행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모든 사부대중이 또 다른 나인 이웃과 생명을

매일매를 부처님으로 공경하자. 그러면 매일이 부처님오신날이 될 것"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별도의 메시지를 통해 부처님의 광명이 세상에 널리 퍼지길 기원했다. 이 대통령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2500년 전 부처님은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자타불이의 가르침으로 화합과 상생을 선포했다. 또한 이웃을 돕는 보시와 이행의 정신으로 나눔과 봉사를 실천했다"며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과 덕행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국민 모두가 화합하고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법요식 헌화에는 쌍용차 노조, 용산참사 희생자 유가족, 나눔의 집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이 참여했으며, 삼흥학교, 다문화가정, 중증 장애아동센터 승가원, 조계사 어린이들이 마정수기를 받아 이웃과 함께 하는 부처님 오신 날의 참뜻을 되새겼다.

이밖에도 박원순 서울시장과 지승동 조

계사 신도회장이 함께 불단에 초를 밝혔으며, 이어 종로소방서 노병윤 소방사와 종로경찰서 한효정 순경이 부처님 전에 향을 올렸다.

12월 대선이 있는 '정치 계절'만 만큼 법요식에는 박근혜 前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황우여 대표, 정몽준 의원과 박지원 민주당통합당 원내대표, 손학규, 정세균 의원 등 주요정당 수뇌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고홍길 특임장관, 송석구 사회통합위원장 등 정치권 인사와 대권 도전을 선언한 임태희 前 대통령실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법요식에 함께 했다.

한국 이슬람을 비롯한 이웃종교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날 법요식에는 NCC 김영주 총무와 천주교 박문성 신부,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 신만종 이사장, 이슬람 이주와 이맘이 참석해 부처님 오신 것을 축하했다. 주요 불교국가인 커먼 웰스 라마 네팔 대사와 양영민 대만 대사, 차츠타 몽골 주재관, 윤 홀라이 미얀마 대사도 참석했다.

글=신종일·사진=박재환 기자



2009년 영월 법흥사에서 진행된 실업극복을 위한 템플스테이에서 참가자들이 법문을 듣고 있다.

다산 정약용이 불교에 남긴 것은?

한국한문학회 '정약용' 학술대회

전남 강진에서 긴 유배 생활을 보낸 다산 정약용. 그는 당시 아함 해장, 초의 의순 스님과 교류를 나누며 차 문화 중흥에 크게 기여했다. 차를 계기로 진행된 불교와 유교의 만남은 그 후손과 제자들에게까지 계속된다.

한국한문학회(회장 김영)가 6월 9일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개최하는 다산 정약용 탄신 250주년 맞이 학술대회에서 박동춘 동아시아문화연구원소장은 "다산 정약용의 전등계 형성과 그 영향"을 통해 다산 정약용과 아함 해장, 초의 의순 그리

고 그 제자들과 다산의 후손들이 맺은 교우관계를 집중 조명한다.

이날 발표에서 박 소장은 다산의 초당 시절 제자인 윤종영이 주축한 사회의 시를 묶은 <기연유사>를 토대로 다산의 신분을 초월한 유불 교유가 해남의 다산제자들과 불교계에 미친 영향을 밝힌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1부 다산연구의 점검과 전망에서 이현창 고려대 교수의 '다산의 국가제도론' 등이 발표되며 2부 다산연구의 자료와 시각에서는 정민한양대 교수의 '다산 일문을 통해 본 승려와의 교류와 강학' 등이 발표된다.

(032)860-7847 노덕현 기자

한마음禪院長 妙空堂 大行禪師

全國比丘尼會葬 奉行에 대한 인사 말씀

妙空堂 大行禪師 추모제 일정

49재	일시	장소
초재	5월 28일 오후 3시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2재	6월 4일 오후 12시 (사시예불 후)	상동
3재	6월 11일 오후 12시 (사시예불 후)	상동
4재	6월 18일 오후 12시 (사시예불 후)	상동
5재	6월 25일 오후 12시 (사시예불 후)	상동
6재	7월 2일 오후 12시 (사시예불 후)	상동
49재	7월 9일 오후 12시 (사시예불 후)	상동

문의 : 한마음선원 본원 031)470-3100

妙空堂 大行禪師 문도 일동

歸依 三寶 하옵고

은사스님이신 묘공당 대행선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에 오셔서 애도의 마음을 함께 해주신 교계의 원로 대덕스님들과 이웃 종단, 이웃 종교에서 오신 수행자 분들과 참석해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문도들은 은사스님의 뜻을 받들어 흐트러짐 없는 올곧은 수행자의 마음으로 묵묵히 정진해나갔습니다.